

제 21 장사도 행전 Tape #8110

누가는 쓰기를, 1절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지난 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모임을 갖기 위해 바울과 만나려고 밀레도의 해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있는 데까지 바울과 동행했는데, 이것은 지난 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레도에서 헤어지자, 직선 항로를 거쳐 고스로 향해했습니다.)

“이른 날 로테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2절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오순절의 절기를 위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으려는 바울의 결심이 있습니다. 3절 “이제 키프러스를 발견하매 이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 닿으니 이는 거기서 뱃짐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4절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헬라어에는, 그들이 조사하여 제자들을 찾았다는 뜻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로로 가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았고,) “이레를 머물때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직접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금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만, 본문을 읽다보면, 그것에 대한 지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투옥과 고난에 대해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경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가지 말아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훈계했거나, 바울의 투옥에 대해 말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내 추측으로는, 우리가 바울에게 가서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다 보내고 우리가 길을 떠날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가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믿는 자들을 찾았는데, 그곳은 페니키아(베니게)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분의 사역 기간동안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 15:21-18).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자기 딸을 탄원하기 위하여 그 분께 나온 여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고, 네 소원대로 네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두로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행한 예수님의 것을 증거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두로에서 장래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바탕을 평탄하게 했다는 것과 바탕, 토대가 있는 만큼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에 의해 실제로 거기에 사역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두로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장면, 도시의 끝까지 바울과 함께 온 그 아내들, 그 작은 아이들, 즉 전체 교회의 모습 같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작별을 나눕니다.

6절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우리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이르러,” (지금 프톨레마이스의 고대 명칭은 아코라는 도시였는데, 물론

거기에 큰 산림이 있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하려다, 실패했던 곳입니다.) **“형제들과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8절 **“이튿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우리는 이들의 목록을 이미 가졌는데, 드로비모와 누가와 지난 시간에서 본, 바울과 여행을 했던 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 함께 머무니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황폐시켰습니다. 바울이 선봉에 섰던 핍박의 결과로서, 제자들은 온 유대로 흩어졌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려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바울에 의해 그 핍박이 추진되었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무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고, 그가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에 흥미로운 다른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갔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대인의 전통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기 빌립이 있는데, 그는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부터 20 여년이 지났는데, 거기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바울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인,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구체 프로그램을 관장하도록 교회에서 지명을 받았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사도 빌립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가 한 사람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 식탁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명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행 6:1-5).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부흥을 가져왔을 것이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설교했던 자이기에, 국가적인 장벽이 빌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또한 바울이 와서 벽들을 내리도록 두드렸습니다. 빌립이 문을 열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져가기까지 그 벽들을 내리도록 두드렸습니다.

9절 “그 사람에게 처녀 딸이 넷이 있는데 이들이 대언을 하더라.” 요엘의 약속에 의하면(을 2:28-3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대언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의 딸들은 대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행 11:28). 그는 그 땅에 임할 가뭄을 예언했었습니다. 그 가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실한 대언자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11절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에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입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그래서, 그는 바울의 투옥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묶일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며, 지금 예수님의 경우로 보면, 이것은 십자가형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요한 처벌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으로 지시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것이 바울을 위한 십자가형, 혹은 죽음을 의미했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물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만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누가와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그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빌립, 가족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도록 간청하며,”** 만약 고넬료가 그 당시 그곳에 여전히

있었다면, 알고자 하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이방인의 믿는 자들과 유대인의 믿는 자들 사이의 많은 혼합이 있었을 것입니다.

13 절 “**이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임박해 오는 투옥일지라도 바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4 절 “**그가 권면을 받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는 애원을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들은 단지,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헌신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점과 씨름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관찰될 때, 가장 현명한 것은 단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른 식으로, 당신은 어떤 것을 노력할 수 있고, 그것을 계속하여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정신적으로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뒤집어엮고, 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을까! 주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믿는 자의 안식의 비밀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에 헌신했을 때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기에,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를 설득할 수가 없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5 절 “**이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래서, 그들은 그를 말리는 노력을 중지했고, 그들은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고 예루살렘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16 절 “**가이사라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가고 또 키프리스 출신의 므나손이라 하는 오래 된 제자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묶어야 하기 때문이라.**” **17 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매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영접하거늘,**” **18 절** “**그 이튿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베드로가 언급되지 않고, 요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언급되지 않으나, 오직 야고보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노트하세요. 사도들이 실제 거기에 있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함께 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도마가 인도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에 있었고, 다소간에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19 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며,**” **20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이라.**” 그들은 당신에게 알려진 자들이며, 그들은 당신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21 절**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저버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또**

관습대로 걷지 말아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당신이 거기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관습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절**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온 것을 무리가 들으면 반드시 함께 몰려오리라.”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 몰려올 것이요! 바울,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일세! 23 절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행하라,”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 알리라.” 지금 그들은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그의 위치를 다소 타협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제의식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음을 알았으며, 그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때 온통 제의적인 객관 속에 있었으나, 이 모든 제의적인 것들을 다 버렸고, 그 제의주의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나, 여전히 오래 된 관습들과 유대인의 제의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실 분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가서, 바울에게 순결의식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르의 서원을 하기 원하고 있던 네 사람을 또한 지원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그들이 실제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당신이 비용까지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오! 바울은 아주 선한 유대인과 같군요. 보세요, 그가 머리를 밀었고, 순결의식을 수행했으며, 이 사람들을 후원하였으니, 선한 유대인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쓰기를(롬 9:3),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큰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꼭 주님에게 그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그의 형제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열망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 형제들은 데려갈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타협을 가지고 타협했고, 논쟁하기보다 오히려, 한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그는, 다시 롬 12:18 에 있는 철학에 따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그것을 할 것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른 곳에서(고전 9:19-21)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제의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일 수 있었고, 유대인의 정결한 음식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햄이나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이 알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정결한 음식법을 따라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든 목적과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의 삶을 몰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그는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알다시피, 유대인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 제의식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나눌 기회를 소망하고 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의 회심 이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에 대한 바울의 꿈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유만 된다면, 내가 확실히 순결의식을 행할 것이고, 이들을 기꺼이 후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했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25 절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이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신은 유대인이니 유대인들은 당신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인은 아니지요? 당신은 유대인이니, 당신은 이 제의식들과 율법의 관습에 의해 살도록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26 절 “이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 날 그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의식을 행했으므로 사실상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 이 규정된 순결의식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기 전까지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했으므로 바울은 헌물을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기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시하여 보이니라.” 그가 그들을 후원하였기에, 그들 모두를 위해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바울이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인데, 이는 그들의 각 사람을 위하여 드러져야만 했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 많은 종류의 다른 헌물들이 있습니다. 즉 죄 헌물, 번제의 희생 헌물, 화목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헌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건데, 죄 헌물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연합의 헌물로서 화목 헌물이거나,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물로서 번제 헌물을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7 절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때에,” (그가 순결의식을 수행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으므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어 붙잡고,”

28 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우라 이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여러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바깥뜰은 이방인들의 뜰이고, 안쪽 뜰은 여인들의 뜰이며, 물론 그 안 뜰은 남자들의 뜰이었습니다. 그 때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대체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뜰 주위에 벽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작은 경고판이 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인접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작은 판은, 만약 그들이 감히 이것 뒤로 넘어왔다면 그들에게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경고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여인들의 뜰, 또는 남자들의 뜰에서 발견했다면, 죽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침입했다면, 그들은 죽음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발의 내용은,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성전을

대항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항해서 말했다는 것이고, 또한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르지만, 단지 그것으로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29 절 [이는 그들이 전에 이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음이더라.]** 틀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모든 도시는 술렁거렸습니다. **30 절 “이에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절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이 그 당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갔었을 것이며, 그리고는 죽이자고 했을 것입니다.) “은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들리니,” 자, 한 가지는, 로마가 봐주지 않았을, 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어느 관리자들이라도 반란을 허용했으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2 절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래서, 대장이 이 소란 때문에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절기 때면 예루살렘에 2 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전해 줍니다. 이때는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모든 장소가 지금 한 소동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치고, 손을 흔들어 대는 것을 빼고는 별로 아는 것이 없을 정도였으니, 겨우 그들은 한 사람을 끌어내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라 하는, 성전 대지 영역의 북서쪽 코너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은, 이곳은 헤롯에 의해 세워졌고, 현관들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성전의 전 지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절기 동안에, 국가주의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로마인들은 절기동안에 항상 더 많은 군사를 불러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때 이 소동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달려가며, 어깨를 짜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대장이 로마 군사들과 내려왔을 때,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니, 은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을 수비대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바울을 심문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이 변호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행 24:2-9).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를 발견해서, 당신이 알지만, 다루려고 다소 시도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알다시피, 그들이 와서 심하게, 당신이 알지만, 그를 우리에게서 데려갔죠. 우리는 단지, 오직 상황을 다루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이 일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지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빛 언어로 말하는 자를 볼 때, 그것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기를 그치매,” 그들이 일을 완전하게 마치지 못했습니다.

33 절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였느냐? 다그쳐 물으니,”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체포했고, 그는 두 손이 한 로마 군인에 의해 묶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34 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치거늘 총대장이 소동으로 진상을 알 수 없어,” (이 모든 사람들은 단지 고함만을 지르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성채 안으로 옮겨가라 명하니라.” 35 절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

들에게 들려가니,” 36 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 버리라 외쳤음이니라.” 그를 없애라! 그를 제거하라!

37 절 “바울이 성채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총대장은 깜작 놀랐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그에게 그리스 말로 했기 때문이죠. 38 절 “네가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사천 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네가 그 사람이 아니냐? 고 묻습니다. AD 54 년경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얻어 이집트로부터 온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리브 산에서 한 무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리브 산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의 벽들을 허물 수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을 시키며, 그 벽은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 명은 벽이 허물어지기를 기다리며,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물론, 군사들이 그들 뒤로 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으나, 이 자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은 그가 동일한 이집트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가 다시 왔다고 여겼기에, 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고 물었던 것입니다.

39 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미친한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나로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니,” 이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무리들은 자기를 분명 죽이려 하는데, 그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 총대장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자입니다. **40 절 “총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허브리말로 말하니라.”** 여기 그는 영광스런 시간에 놓여 있어, 그것을 위해 살아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열심히 나누려는 기회를 가지고, 그는 기꺼이 이 특권 안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카리스마, 카리스마적인 사람을 말할 때 진정한 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흥미로운데, 정말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들어 올려가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그를 없애 버리라! 고 울부짖으나, 지금 바울은 위에 서서 손을 흔들며, 조용히 하시오! 라고 말하자, 그들 모두는 갑자기 아주 조용히 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단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으려 했고, 그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기회 말입니다. 그가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 결과를 발견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빛을 주소서. 당신의 말씀과 사랑의 빛 안에서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신의 뜻에 매우 헌신되고, 당신의 뜻에 매우 민감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잘 하므로 안식의 장소와 평화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교회에, 지역사회에, 그리고 나라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날에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을 기도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 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될 것이기에 우리는 당신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예수님, 원하건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상태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의로운,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한 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소서! 그래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